



그림 1-1



불화 속의 명 장면 (4)

日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'치성광여래강림도'



그림 1-2

별자리에 담긴 불변의 진리 표현

밤하늘을 마치막으로 올려다본 것이 언 제였을까요? 철야로 켜져 있는 빌딩 숲의 불빛,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 거리들, 잠들지 않는 대도시 속에 살며, 우리는 바로 머리 위에 드리운 커다란 하늘의 존재를 잊은 지 오래인 듯 합니다. 하늘의

달빛과 별빛의 청명한 신비로움과는 멀어 진 지 오래인 듯 합니다.

여기에 소개하는 '치성광여래강림도'는 천상의 모든 별자리를 한 폭의 불화에 가득 옮겨놓은 매우 이채로운 작품입니다. 작품의 주존불인 치성광여래(熾盛光如來)는 조금은

생소한 명칭의 부처님 같이 느껴질지 겁니 다.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칠성각에 모셔 진 부처님이 바로 치성광여래이고 또 칠 성탱화의 주존불이기도 합니다.

치성광여래의 정체는 바로 하늘 의 '북극성'입니다. 북극성은 유일 하게 움직이지 않는 북극의 별 로, 방위의 지침이 되고 또 무수 한 별자리의 기준이 되는 축으 로서의 역할을 합니다.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, 더 나아가 북 극성은 절대불변의 진리, 우주의 중심 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 받게 됩니다.

천체의 중심에 대응하는 지상계의 중심으로 천자와 동일시되어, 그 신격화 의 유구하고도 다양한 종교적 천문학적 전 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특히 불교에 서 이 북극성은, 본 작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치성광여래로 신성시되어 숭배됩니다. 조선 후기 사찰의 거의 전폭적 분포를 보 이는 칠성각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북극전 또는 북극보전(北極寶殿) 등의 현판이 확인되 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. 본도의 치성광 여래 좌우로는 해와 달에 해당하는 일광(日 光)보살과 월광(月光)보살, 그 주변으로는 북두칠성에 대응하는 칠성보살, 또 그 주변 으로는 오성(五星) 등이 주존을 보좌하며 중심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

또 이 중심군을 한 번 더 외곽에서 둘러 험시하는 것은 28수에 해당하는 28성수신 (星宿神, 그림3)입니다. 이 성수신의 머리 위에는 해당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, 이들은 도교의 성군(星君)의 복장인 조복에 홀(笏) 을 들고 있어, 도교적 성수신앙이 불교와 습 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듯 치성 광여래가 천공의 모든 다양한 별자리를 거 느리고 지상으로 왕립해 내려오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기에 '치성광여래제성강림도 (熾盛光如來諸星降臨圖)'라고도 부릅니다.

작품의 가장 윗부분에는 좌우 6개의 원 안에 12궁(그림1)이 그려져 있습니다. 본래 바빌로니아어에 그 기원을 두는 그리스도의 황 도 12궁체계가 동침되어 중국으로 전파된 것인데, 본래 서양 전래의 별자리 도상이

으로 대대적으로 유행합니다.

이러한 칠성여래의 강조 현상과 더불어 조금은 부르기 어려운 '치성광여래도' 라는 명칭에서 '칠성탱'으로의 전이 가 쉽다. 또 치성광여래와 칠성 여래의 신앙적 기능은 중첩되고 서로 보완적 형태를 띠게 됩니 다. 그렇다면 이 치성광여래강 립도는,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화장르인 칠성탱화의 모태가 되는 귀중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.

<치성광여래소제일체재다라 니경>(약칭, 고려대장경 권34- 95)에는 '별자리의 운행(또는 천체 의 운행)에 의해 생겨나는 지상의 일 체의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단을 세우고 이 치성광법 다라니를 독송하면 일

고/ 만물이 창성하고/ 좋아하고 싫어함에 절도가 있고/ 즐거움과 성냄이 함당함을 얻 게 되고/ 그리하여 백성된 사람은 존중하고 /왕이 된 사람은 명철해 진다.'

사마천의 사기 <예사>의 한 구절은 이 천인감응설을 매우 유려하고도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이 문구의 앞에는, 말 하자면, '體(내용·본질)와 용(형식·수식) 을 결비한 예(禮)가 갖추어 지면'이라는 전 제가 있습니다.

즉, 지상의 예제(풍속과 제도)가 사람들 의 보편적 정서와 하늘의 뜻에 부합하여 잘 운영되었을 때 저절로 얻어지는 지상의 아 름다운 평화를 읊는 것입니다. 고전들을 살 펴보면 옛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하늘에 훨 씬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연 에 덜 오만하고, 천체의 운행에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을 가능하고, 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는 기회를 가졌던 것은 아닐까요?

특히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별자리신 중 에서도 가장 민간에 친숙했던 칠성여래가, 그 많은 신앙적 기능 중에서도 생명을 주관 하는 '수명 연장의 신'으로서의 기능이 강 조되어 숭배되어 왔습니다. 여기 소개한 치 성광여래강림도는 우리에게 친숙한 칠성 탱의 연원적 유래를 보이는 작품입니다. 칠 성탱은 반드시 치성광여래를 주존으로 하 기 때문에, 그 정식 학술적 명칭은 치성광 여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.

오늘날에도 이 칠성각에서 기도되는 수 많은 염원을, 지병을 낫게 해달라는, 건강 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, 아이

를 잡지해 달라는, 재난을 소멸해 해달라는, 공부 에 진보가 있게 해달 라는, 제책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이 지상의 갖가지 간 절한 소원들이, 불 화 속에 왕립한 별 자리 부처님을 통해 하늘에 다 달기를 기원 해합니다.

강소연(홍익대학교 겸임교수)



그림 2

12궁 통해 별자리 조선 전파 역사적 상관성 보여줘 신앙적 기능 등 우리만의 불화장르 칠성탱의 모태

참으로 긴 세월 동안 그대로 유전되어 중국 을 거쳐 결국 조선전기 16세기 작품(1569 년인 본 그림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는 점에서, 도상과 그 성립 전거에 있어서의 필연적 상관성과 역사적 유구성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.

본존불의 바로 우측에는 북두칠성의 별 자리와 함께 칠성신(보살과 필성을 더해 합 9성, 그림2)이 따로 강조되어 그려져 있습니 다. 이 북두칠성의 존재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 쉽게 찾을 수 있어 예로부터 항로 나 육로 여행자들의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고, 또 그 위치변화는 사계절을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.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칠성 여래로 신격화되어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 로서 '대중의 길잡이'가 되었습니다.

본도 '치성광여래강림도'에 나타나는 북 두칠성신은 조선전기 어느 시점부터 그 대 중적 인기와 더불어 '여래행'으로 승격하 여, 특히 조선후기에는 칠성불 또는 칠성여 래로, 민간과 가장 친근한 부처님 중 한 분

체의 재난이 소멸된다'라고 쓰여 있어 그 신앙적 기능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 다. 즉 성수의 변화에 의해 지상의 변화 가 야기되고, 또 개인 및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'운명속성설' 또는 '생명속 성설'은, 본래 하늘과 땅이 서로 감응하 여 움직인다는 '천인감응설'에 그 사상 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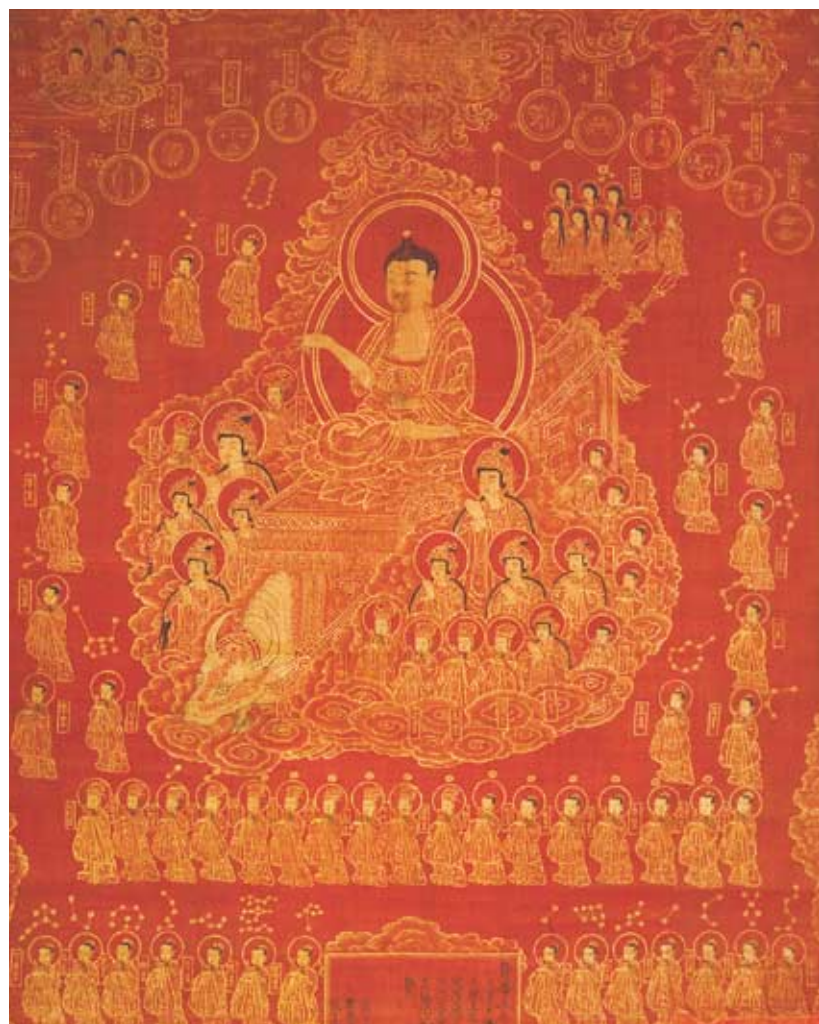
하늘의 뜻은 천공의 별들의 운행으로 점쳐지기도 했고,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은 하늘과 땅을 잇 는 군주의 부도덕한 소치로 읽혀지기도 한 것은 주지의 사 실이요.

'천지가 합일하고 일월이 빛나며/ 사계절 이 순서에 따라 찾아오고/ 별들이 운행하고/ 강물이 흐르



그림 3

칠성각의 부처로 '북극성' 의미하며 천자와 동일 28성수신, 도교 신앙 불교와 결합된 것으로 판단



치성광여래강림도(熾盛光如來降臨圖). 조선전기(1569년) 작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. 그림 1-1: 황도12궁 중 좌측 6궁, 그림 1-2: 황도12궁 중 우측 6궁, 그림 2: 북두칠성과 칠성신, 그림 3: 가장 외곽의 28수 성수신 중 부분.

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(주)행복만선 Tel. (02)730-0705

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둥성 성지 순례 5박 6일 여행경비: ₩ 450,000원 (화동페리 이용)

북경 사찰 순례 및 관광 7일 (유람선 이용 금요일 출발) ₩ 450,000원 (가이드 기사 팁 포함, 비자, TAX 별도)

여행조건

1. 국제선박료, 현지 차량, 입장료, 식사비, 중국비자비, 현지 가이드 기사 팁 등 제 비용 포함(개인 경비만 제외)
2. 선내 2박은 다인실 기준, 현지 호텔은 2인 1실 기준
3. 출발은 10명이상 가능
4. 10명이상 단체는 타 페리 이용 출발요일 변경 가능하니 문의 요망

일 자	도 시 명	교 통 편	순 려 일 정
제1일	인 천 도	화동페리	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7시 승선, 인천항 출발, 선내 휴식
제2일	청 주 치 박	전용버스	08시 석도항 도착 / 입국 수속 후 청주로 이동 불교 문화 유산이 잘 보관된 "청주 박물관" 관람 "탄산석굴" 참배후 치박으로 이동 호텔 휴식
제3일	치 박 제 남 태 산	전용버스	제남으로 이동 명대 4대 사찰인 "염암사" 순례 후 태안으로 이동 고려조 만공대사께서 창건하신 "보조사" 순례 케블가 이용 태산 등정 후 호텔 휴식
제4일	태 산 담 유 방	전용버스	석가모니 부처님의 佛齒를 모신 "보상사" 순례 제남 경유 유방으로 이동 양가부 민속촌 관람 → 호텔 휴식
제5일	유 방 석 도	전용버스 화동페리	석도로 이동 장보고 대사께서 창건한 "적선법화원" 순례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휴식 18시 출항, 선내 자유시간 및 휴식
제6일	인 천		09시 인천 도착 입국 수속 후 해산

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(진행 및 인원 상담)

달집 수미단 전문 조성

천불전, 명상, 경탁, 경상, 불전함, 인등, 현판, 주련 등 전문 제작

누리 불교 예술원 박연오 합장

TEL : 031)543-7073
H·P : 011-703-9130
FAX : 031)543-9162

www.nuribul.com